권 두 언

# 대학의 변화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이는 개인의 인생이나 한 집단의 존속 또는 한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변화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우리 대학은 지진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대학은 변화하는 삶의 현장과 그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거리는 대학이 안고 있는 좀 더 본질적이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된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학문 경향으로서의 경험주의·과학주의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대학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으로서의 아카데미즘이다.

가치판단을 배제한 현대 과학주의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존재의 변화를 기다린다. 이는 자연과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인문·사회 과학의 영역에서도 역시 과학의 이름으로 대상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한편, 과학주의는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결합하여 상아탑이라는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그 세계는 높이 둘러쌓아 놓은 그들의 벽돌담만큼이나 현실과 격리되고 사회와 분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선 낭만주의가 흐른다. 산·학 협동과 학문의 도구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과 사회의 분리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앎과 삶의 분리현상과 병행된다. 삶과 생산의 현장으로서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대학은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러한 분리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제 윤리는 가정에서, 과학은 학교에서 그리고 인생은 사회에서 가르친다. 그리고 학생은 그 세 가지 교육내용의 괴리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든다. 이러한 분업의 출현 역시 문명 진보의 소산인가.

대학은 사회의 불가분리적인 한 부분이고, 지와 행은 상호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삶의 이러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의 대학은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 목적은 사회적·역사적 변화와 발을 맞추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연구의 사회화, 교육의 민주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부경대 총장 한 영 호

연구의 사회화란 아카데미즘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방향을 말한다. 그렇다고 관학(官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 '실학'(實學)의 풍토가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묵은 관점이지만, 지식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그 자유의 영역을 확보했다.

교육의 민주화란 대학의 엘리트주의적 선발체계와 폐쇄적 교육체제의 개방적 변화를 말한다. 교육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지속적 과정의 한 측면인 것이다. 인생의 일정 시기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과학'을 전수하는 것이 대학의 일차적인 사명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설이다. 소수의 몇몇이나 소수 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그들만 지혜로워도 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온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사회라면, 진정 온 국민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사회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은 문만 넓힐 것이 아니라 담을 헐어야 한다. 대학은 직업세계의 실천과 실용을 더욱 수용하고, 직업세계는 대학의 이론과 통찰에 수시로 접해 지행합일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은 '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교육개혁 방안으로서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는 그 방향성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으로서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원격교육체제,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등의 도입만으론 그 목적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개방대학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